

도시재생사업에서의 사회복지사업 유형 및 내용 분석

A Study on Typology and Contents of Social Welfare Programs in Urban Regeneration Projects

강혜규*, 엄태영**, 류진아***

한국보건사회연구원*, 경일대학교 사회복지학과**, 한국보건사회연구원***

Hyekyu Kang(hyekyu38@daum.net)*, Tae-Young Um(bokjisa@kiu.ac.kr)**,
Jina Ryo(africa31@kihasa.re.kr)***

요약

본 연구는 도시재생에 대한 기존의 물리적 접근의 한계를 극복하고자 추진 중인 최근 도시재생의 흐름 속에서 사회복지적 접근의 실체를 파악하고 사회복지 기법의 정착과 확대에 필요한 제안 사항을 고찰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하여 도시재생 선도지역과 주거취약지역의 사업계획서에서 내용분석의 방법을 적용하여 사회복지 사업을 추출하였으며 사업들을 특성과 형태에 따라 유형화하였다. 분석 결과 도시재생 지역의 사회복지사업은 경제적 기반마련, 복지중심 주거환경개선, 지역사회통합추진, 사회복지서비스제공의 4가지 유형으로 나타났으며, 각 유형은 다시 12개의 세부 유형으로 분류되었다. 연구 결과를 토대로 향후 도시재생사업에 사회복지기법이 안정적으로 운영되기 위하여 지역특성에 맞는 일자리 연계, 사업수행과정에서 당사자의 적극적 참여, 지역사회통합을 위한 역량 강화, 사회복지서비스 확대 제공이 필요하다는 시사점을 제시하였다.

■ 중심어 : | 도시재생 | 사회복지사업 유형 | 선도지역 | 주거취약지역 |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understand the social welfare approach and to suggest implications for the establishment and expansion of social welfare techniques in recent urban regeneration to overcome the limitation of physical approach to urban regeneration. We used the method of the content analysis to extract social welfare programs in project plans of urban regeneration regions and vulnerable residence regions and then let them be categorized according to characteristic and form of their programs. As a result of the analysis, there are 4 welfare programs in urban regeneration regions; setting the economic fundament, improving the residential environment focusing on welfare, pursuing community integration and social service providing. And each type was classified into 12 subtypes. Based on the result of this study, some implications are suggested to operate social welfare techniques in a stable manner in urban regeneration projects; link of the suitable jobs for regional characteristics, the participation of local residents in the project process, empowerment for community integration and expanded provision of social services.

■ keyword : | Urban Regeneration | Typology of Social Welfare Programs | Urban Regeneration Regions | Vulnerable Residence Regions |

I. 서론

우리나라 도시계획에서의 패러다임이 그동안 진행되어왔던 대규모 택지개발 중심에서 소규모 도시재생방식으로 크게 변화하고 있다[1]. 성장 중심논리의 강조로 인해 비롯된 전통적인 지역사회 파괴와 지역 소외, 지역정체성 상실, 그리고 지역 간 사회·경제적 불균형 해소를 위한 대안으로써 도시 재생적 접근이 추진되고 있는 것이다.

2000년대부터 각 행정부서 별로 도시재생 관련 정책이 본격적으로 시작되어 사업의 세부적인 내용 역시 개발에서 재생으로의 변화를 보여주고 있다[2]. 특히 2014년 9월부터 국토교통부는 주택공급방식에 있어 기존 대규모 택지공급방식을 탈피하여 도시재생방식을 적극 활용하고 있으며 지역의 특성을 고려하여 소규모 택지를 개발하는 방식을 추진하기에 이른다[3].

이러한 도시 재생적 접근은 낙후한 도시에 대해 거주하는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물리적·환경적 측면과 사회·경제적 측면을 함께 추진하는 정책으로 볼 수 있으며, 이를 통해 궁극적으로 인구 유출을 막고 새로운 인구 유입을 활성화함으로써 전반적으로 도시의 활력을 불어넣는 것을 주요한 목적으로 한다. 따라서 변화한 도시재생의 관점에서 지역 내의 실업과 빈곤, 주거환경 악화, 범죄, 도시기반시설 노후화, 지역공동체 의식 약화 등 그동안 만연한 다양한 지역사회 문제들에 대한 보다 포괄적이고 적극적인 해결 노력이 필요하다.

하지만 도시재생사업이 기존의 대규모 물리적 환경 정비 중심의 한계를 극복하려는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물리적 접근은 강조되고 있다. 도시재생 선도지역 사업의 재원관련 연구[4]에서도 지적인 바와 같이 전체 사업 개수 중 물리적 측면의 하드웨어 사업이 전체 사업비의 51.8%나 차지하고 있으며¹ 사업비 내용의 측면에서도 하드웨어 사업비가 전체 사업비의 73.9%에 이르고 있다². 결국 도시재생 과정에서 비 물리적 사업이 강조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물리적 접근을 강조하는 근원적인 한계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것이

다.

따라서 쇠퇴한 도시지역의 복합적인 사회문제를 적절히 다루기 위한 방안 모색의 과정으로 도시재생사업 내에서 사회복지적 기법을 적용하는 방식이 고려되고 있다. 2015년부터 국토교통부가 도시재생사업 내 사회복지 기법 실증과 관련한 R&D 과제를 설정하고 도시재생과 복지를 연계하는 방안을 마련하고자 한 것이다. 이를 통해 도시재생 지역 내에서 활용할 수 있는 도시재생-사회복지 연계 매뉴얼 개발, 매뉴얼에 기반한 실증을 수행하여 본격적으로 도시재생에서 사회복지적 접근을 시도하고 있다. 결국 도시재생사업 내에서 사회복지적 기법을 안정적으로 적용하기 위해서는 도시재생 계획수립 단계에서부터 기존의 물리적 접근 외에도 도시재생지역의 다양한 사회문제에 대한 해결적인 접근이 필요하다. 물론 도시재생과 사회복지를 연결시키고자 하는 연구들이 이루어진 바 있지만 아직까지 개념정의[5]나 사회적 편익사례 제시[6], 경제적 과급효과분석[7]에 그치고 있어 보다 거시적인 측면의 도시재생과 사회복지의 연결연구가 필요한 실정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현행 도시재생 선도지역과 주거취약지역에서 추진하고 있는 도시재생활성화계획(안)과 사업계획서 분석을 통해서 어떤 유형의 사회복지적 기법들이 적용되고 있는지를 파악해보고자 한다. 또한 이를 바탕으로 하여 향후 도시재생사업 내에 복지기법을 어떠한 방식으로 확대하고 정착시켜야 하며 추가적으로 고려해야 할 점은 무엇인지 진단해 보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이와 관련한 연구문제를 설정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도시재생 선도지역과 주거취약지역의 사업계획(안) 내에 사회복지 사업들은 어떠한 것이 있는가? 둘째, 이러한 사회복지 사업들은 어떻게 유형화되는가? 셋째, 현재 계획된 사회복지 사업들이 안정적으로 수행되기 위해 필요한 조건은 무엇인가?

II. 이론적 배경

1. 도시재생사업

1.1 도시재생사업의 개념

1 동일 보고서에 따르면 사업 개수 중 소프트웨어 사업은 전체 사업비의 32.8%, 융합형 사업은 15.3%이다[4].

2 소프트웨어 사업비는 5.3%, 융합형 사업비는 20.8%로 나타났다[4].

도시재생의 개념은 국가마다, 시대마다 다소 다를 수 있지만 대체로 대도시가 쇠퇴함에 따라 실업, 빈곤, 주거악화, 도시기반시설 노후화 등 사회적, 경제적, 환경적인 문제가 집중되는 현상에 대한 대응 정책을 의미한다. 앞서 도시재생정책을 시행한 외국의 사례를 보더라도 도시재생은 슬럼 제거, 주거 개보수, 양질의 주택공급 등의 물리적 재생과 함께 도시 활력 증진, 지역경제 활성화 등 매우 다양한 목표를 지향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8][9]. 한국의 경우에도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 2조에서 도시재생을 “인구의 감소, 산업구조의 변화, 도시의 무분별한 확장, 주거환경의 노후화 등으로 쇠퇴하는 도시를 지역역량 강화, 새로운 기능의 도입·창출 및 지역자원 활용을 통하여 경제적, 사회적, 물리적, 환경적으로 활성화시키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여기서 도시재생사업의 기능은 물리와 환경을 포괄하는 환경적 측면과 산업 및 문화와 관련한 경제적 측면, 그리고 생활과 커뮤니티 접근을 강조하는 사회적 측면으로 구분할 수 있다. 그리고 이 세 가지 기능과 관련한 사업수행을 통해 도시기능을 회복하고 도시 내 다양한 커뮤니티를 생성하며 궁극적으로 도시의 활력과 매력을 창출하는 것이다[1].

이러한 도시재생사업은 2013년 12월 「도시재생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 시행되면서 체계적 사업 추진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에 이른다. 특히 국내 도시쇠퇴문제에 대한 그간의 대응과정에서 재건축, 재개발 중심의 물리적 재생을 지양하고 개별적이고 단편적 접근방식을 벗어나 장기적 시각을 바탕으로 도시에 활력을 조성하는 계기를 마련하였다고 볼 수 있다. 또한 도시의 경제, 사회, 문화적 활력 회복과 관련한 공공의 역할과 지원을 바탕으로 도시의 자생적 성장 기반 및 지역공동체 회복으로 궁극적인 지역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수 있게 되었다[10].

1.2 도시재생사업의 내용

「도시재생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서 도시재생사업은 국가도시재생 기본방침과 도시재생전략 계획, 그리고 도시재생활성화계획 등 3단계의 체계를 기본 골격으로 하고 있으며 이 중 도시재생활성화계획

은 주요 목적과 성격에 따라 도시재생사업을 도시경제 기반형과 근린재생형으로 구분하고 있다[7]. 「도시재생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 제정된 다음해인 2014년에는 법의 실효성 확보와 사업의 성공적 안착을 위하여 도시재생이 시급히 이루어져야 하는 13개 지역을 국가도시재생 선도지역으로 지정하였다. 선도지역은 성공적인 도시재생 모델 확립과 사업 성과의 타지역 확산을 염두에 둔 테스트베드로서, 13곳 중 2곳은 산단, 항만, 역세권 정비 및 복합개발을 통한 고용기반 창출을 목적으로 하는 경제기반형 지역으로, 11곳은 생활권 단위의 생활환경 개선, 골목경제 살리기 등을 목적으로 하는 근린재생형 지역으로 설정되었다[11].

이와 함께 근린재생형 선도지역 사업과 사업 추진 근거는 다르지만 지역의 종합적 재생이라는 측면에서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 프로젝트(이하 주거취약지역)’가 추진 중이다. 주거취약지역 사업은 정부의 지역행복생활권 정책의 일환으로 최저 주거기준에 미달하면서 재개발 사업에서도 소외되어 있으며 정부의 지원순위에서도 밀려 방치되다시피 한 주거취약지역을 대상으로 하는 도시재생 사업이다. 이들 지역은 소방도로, 상하수도 등 인프라 부족, 안전 취약, 경제적 빈곤 등의 공통적 문제를 안고 있다. 달동네를 포함하여 주거환경이 매우 열악한 지역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생활 인프라를 구축하고 집수리를 지원하며 돌봄이나 일자리 등 사회적 서비스를 종합 패키지로 시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³. 공모를 통하여 선정된 주거취약지역은 2015년 30개, 2016년 22개로 4년간 평균 20~50억 원을 국비 70%, 지방비 30% 비율로 지원받는다.

1.3 선행연구 고찰

도시재생의 개념에는 그 자체에 이전의 물리적 재개발과 차별화되는 요소로서 사회복지적 지향을 포함하고 있지만, 도시재생과 사회복지의 개념을 직접적으로

3 보다 상세한 사업내용사례를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먼저 생활인프라 사업은 소방도로 개설, 도시가스 및 하수도 보급률 향상, 경사지 옹벽 및 난간 설치, 노후담장 등에 대한 개보수 지원으로 볼 수 있다. 집수리 지원은 슬레이트 지붕 개량과 지붕누수 보수, 벽체 및 창호단열, 보일러 개보수이며 복지 및 일자리 등 사회적 서비스 사업은 노인돌봄, 건강관리, 소외계층 취업 등 생애주기별 필요한 맞춤형 휴먼케어 사업을 그 내용으로 하고 있다[11].

연결시켜 탐색하고 있는 연구는 매우 드물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시재생사업 내에서 사회복지적 내용을 살펴보기 위해 본 연구에서는 크게 세 가지 틀을 바탕으로 선행연구를 고찰하였다. 첫째, 도시재생과 사회복지의 개념을 간접적이거나 연결시켜 다루고 있는 국내외 연구, 둘째, 도시재생사업 내의 사회편익적 요소를 분석한 연구, 그리고 셋째로 외국의 도시재생사업 내에서 간접적으로 사회복지 사업을 포함하여 이를 분석한 연구로서 이 세 가지 틀을 그림으로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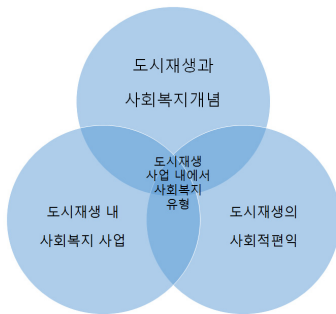


그림 1. 문헌분석의 틀

먼저 도시재생과 사회복지의 개념을 직접 연결시키려는 시도는 감정기[5]의 사례가 유일하다. 이 연구는 사회복지학 내에서 도시재생을 하나의 개념으로 다루고 있는 시론적 성격이 강한 연구로서 사회복지학과 도시재생을 연결시킨 연구들의 기초가 되고 있다.

도시재생사업의 물리적 측면을 벗어나 사회적 편익을 분석한 국내의 연구들도 찾아볼 수 있다. 도시재생사업이 구도심 내에서 노후시설에 대한 물리적 측면의 개선 외에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 다양한 커뮤니티를 복원함으로써 지속가능한 도시를 지향한다는 연구[6]와 함께 도시재생사업이 가져오는 산업별 파급효과와 부가가치 유발효과, 특히 취업 및 고용에 대한 성과를 중심으로 한 경제적 파급효과를 제시하고 있는 연구가 있다[7].

사회적 측면의 편익을 분석한 연구 중 Kupke는 호주에 대한 도시재생사업 사례연구에서 주거공간이나 각종 물리적 환경의 변화 외에도 실업률이나 주민들의 교육수준의 긍정적 변화뿐만 아니라 가계규모나 인구 등

의 변화도 함께 살펴보고 있다[12]. Beatriz와 Silke의 연구에서는 구겐하임 박물관의 고용 증대 효과를 산출하여 도시재생과 지역 개발에 긍정적 영향을 분석하였다[13]. 또, Sophia는 영국과 프랑스, 폴란드에서 진행된 4건의 도시재생 사례를 시간 변화에 따라 고용, 소득 및 지출의 측면에서 분석함으로써 문화적 도시재생의 사회경제적 효과를 연구하였다[14].

이와 함께 민혜숙[15]은 도시재생사업의 경제적 성과 분석 외에 도시슬럼화 방지,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 환경적인 편익과 같은 비경제적, 사회적 효용의 항목들을 구체화하는 연구결과를 제시하고 있다. 특히 실증의 결과로 사회적 효용 측면에서 새로운 인구가 유입되고 지역경제가 활성화되며 각종 커뮤니티가 형성됨으로써 궁극적으로 생활환경과 삶의 질이 향상되는 등 도시재생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충분한 가치가 있음을 제시하고 있다.

외국의 도시재생사례와 관련한 연구[16]에서도 간접적이거나 도시재생사업 내에서의 사회복지적 요소를 발견할 수 있다. 우선 영국 런던시 도클랜드 지역에서는 당초 정부 주도의 경제적 재생을 목표로 설정하였지만, 커뮤니티 중심으로 주거와 고용, 교육 등에 대한 사회적 패키지 형태의 접근을 시도한 바 있다. 맨체스터 노스무스 지역에서도 주거공간에 대한 물리적 환경개선과 공공공간 개선사업 이외에도 마을 비즈니스를 위한 공간마련이나 커뮤니티에 대한 주민 참여활동, 커뮤니티 아트를 중심으로 주민들의 소속감 향상 사업이 추진되었다. 특히 이 사례에서는 다양한 특성을 지닌 주민들이 참여하였으며 도시재생사업 과정에서 주민들이 주체가 되는 과정을 잘 보여주고 있다.

독일 슈베르트시의 오베레 탈산드 지역에서는 독일 통일 이후 대규모의 인구유출로 주거단지 중심의 도시 쇠퇴과정이 진행되었지만 공가들을 청소년 복지 공간, 어린이집을 위한 녹지, 학교 운동장으로 활용하고 커뮤니티를 활성화하기 위한 청년 직업훈련, 노인과 청년을 대상으로 하는 다양한 워크숍, 그리고 청년들의 역량을 강화하는 각종 프로그램을 추진한 바 있다[16].

이 외에도 도시재생의 사회적 측면을 다루는 연구로서 도시재생의 '지속 가능한 공동체' 혹은 '사회적 자본'

이나 ‘지역 자산’ 측면에서 접근한 연구들이 있다. Sally는 케슬필드의 사례를 통해 경제적 동력이 있는 도시재생이 지속 가능한 지역 사회를 창출할 수 있다고 보고하였으며[17], Karen은 도시재생의 맥락에서 사회적자본의 역할을 지역사회, 네트워크, 권력구조의 측면에서 검토하였다[18]. 이처럼 도시재생을 물리적 측면뿐만 아니라 사회·경제적 측면에서 다루고 있는 선행연구는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나, 본격적으로 사회복지의 관점과 틀에서 접근한 연구는 찾아보기 어렵다. 물리적 재생에 집중된 기존 도시재생의 한계를 극복하고 지역의 경제적, 사회적 문제까지 종합적으로 해결하고자하는 도시재생 본래의 목적 달성을 위해서는 사회복지의 접근이 필수적이며 관련 연구의 축적이 필요하다.

2. 연구방법

2.1 연구대상 및 자료수집

본 연구는 도시재생사업 내 복지연계기법 적용방안 모색을 위해 근린재생 선도지역의 “2015년 근린재생형 활성화계획4” 사업계획서 및 주거취약지역의 “2015년 주거취약지역 생활여건개선프로젝트” 사업신청서를 대상으로 하여 복지 관련 내용을 분석하였다. 근린재생 선도지역과 주거취약지역은 「도시재생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 이후 정부에서 추진 중인 대표적인 도시재생 정책 사업이므로 이 지역들의 사업계획은 도시재생에서 복지 관련 사업이 다루어지는 양상과 복지에 대한 인식을 가장 잘 파악할 수 있는 자료이기 때문에 연구대상으로 설정하였다. 특히 선도지역은 앞으로 시행될 도시재생 사업의 테스트베드로서의 성격을 가지고 있어 해당 지역 사업의 방향성과 성과가 전국적으로 미치는 영향이 크다는 점에서 분석의 의의가 크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근린재생 선도지역과 주거취약지역 사업 계획 외의 자료는 수집이 제한되어 있고, 자료의 형태가 비체계적임을 고려하여 본 연구에는 반영하지 못했다는 한계를 가진다.

보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총 13개의 근린재생 선도 지역 중 경제기반형 2곳을 제외한 근린재생형 11개 지

역과 2015년에 지정된 30개의 주거취약지역이 연구대상으로 구성되었고, 세부적인 지역사항은 [표 1][표 2]와 같다.

표 1. 선도지역 현황

유형	지역		사업구상	
도시경제기반형(2)	부산	동구	부산 북항-부산역-원도심을 연계한 창조경제(인기업,벤처기업 등) 지구 조성	
	충북	청주시	폐공장 부지(연초제초창)를 활용한 공예·문화산업지구	
근린재생형	일반 규모 (6)	서울	종로구	뉴타운 사업 해제지역 주거지 재생 사업, 봉제공장(가내수공업) 특성화
		광주	동구	아시아문화전당(구전남도청)주변 구도심 상권활성화
		전북	군산시	군산 내항지구와 연계한 근대역사문화지구 조성
		전남	목포시	유달산 주변 구도심 공폐가 활용 예술인마을 조성
		경북	영주시	40-50년대 형성된 근대시장(후생시장, 중앙시장)과 구 철도역사 주변 재생
		경남	창원시	부림시장, 창동예술촌 중심의 문화예술 중심 도시재생
	소규모 (5)	대구	남구	공연소극장(100여 개) 밀집 거리 재생을 통한 구도심 활성화
		강원	태백시	폐 철도역사, 구 탄광도시의 정체성을 살린 소도시 재생
		충남	천안시	빈건물을 활용한 청년기반시설(기숙사, 동아리방, 스튜디오) 조성을 통한 활력 창출
		충남	공주시	백제왕도의 문화유산을 활용한 특화거리 조성, 산성시장 등 전통시장 활성화
전남	순천시	노후주거지역 친환경마을 옥상녹화, 빛물활용 등 만들기, 생태하천, 부유성터 복원		

도시재생 종합정보체계[19][20] 재구성

표 2. 주거취약지역 현황

지역		주요 사업 내용
서울	종로구	범죄예방디자인 적용 마을경관 개선 등
부산	영도구	집수리지원, 마을관리사무소 등 15개 사업
부산	서구	소방도로 개설, 목수공방사업 등
부산	사상구	골목길 정비, 마을기업 지원 등
부산	사하구	생활환경 개선, 공동체 지원 등
대구	중구	집수리, 사회적기업 지원 등
인천	동구	해피하우스 조성, 주민공동협의체 운영 등
인천	부평구	노후불량주택 건축물 개량, 빈집철거 등
광주	남구	마을일꾼만들기, 마을기업 지원 등
광주	서구	일자리창출, 공공위생시설 개설 등
대전	대덕구	공동작업장설치, 노인공동생활공간 신축 등

4 근린재생활성화계획(안)은 국토교통부에서 2014년 12월에 최초로 승인한 내용을 분석하였다.

울산	남구	마을기업 및 협동조합 육성, 집수리 등
세종	조치원	보행환경개선, 마을코디네이터 양성 등
제주	제주시	마을공동시설 개선, 공방운영 등
경기	포천	상하수도정비, 농특산물 포장재 생산 등
경기	양주	마을길 정비, 마을회관 리모델링 등
강원	강릉	마을기업육성, 셰어하우스 조성 등
강원	태백	둘레길 조성, 소득증대사업 추진 등
강원	동해	노인장애인 주택 문지방 개선, 교육돌봄 등
강원	영월	경로당 증축 개보수, 마을소득증대사업 등
충북	제천	노후주택 개보수, 마을 인프라 개선 등
충남	논산	소방도로 확보, 공원 설치, 벽화거리 조성
전북	전주	마을숲 조성, 폐공가 정비 등
전북	익산	공폐가 천거, 거리환경개선 등
전남	여수	주택침수파손, 화재 예방 사업 등
전남	순천	마을택시 운영, 공동생활홈 운영 등
경북	김천	안전 확보 사업, 빈집 관련 사업 등
경남	양산	주민 간 커뮤니티 시설 설치, 공간 정비 등
경남	창원	아이돌보미 마을기업, 집수리 사업 등
경남	진주	무료진료소 운영, 마을방범단 운영 등

주거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선프로젝트사업계획서[21]

2.2 자료분석

본 연구는 내용분석 중 일부 방법을 활용하였다. 일반적으로 내용분석은 다양한 텍스트들로부터 타당한 내용을 도출하는 체계적인 과정으로[22] 각종 기록이나 책 등 모든 기록을 분석할 수 있는 사회과학 연구도구이다. 특히 출판물 등을 통해 연구대상과 현상에 대한 이해와 지식을 제공할 수 있는 장점이 있으며 방대한 양의 텍스트를 보다 적은 범주로 조직화할 수 있다.

본 연구과정에서는 사회복지적 내용에 대한 범주 도출을 위해 전통적 내용분석방법을 적용하였다. 이는 선행연구가 거의 없거나 미흡한 경우 귀납적 방법을 통해 범주를 구분하고 명명하는 방식이다[23]. 수집된 도시

재생관련 계획서들을 연구자들이 반복, 교차해서 읽으면서 도시재생사업으로 제시된 세부 내용들 중 사회복지적 내용들을 도출하여 코드화하였으며, 코드의 연계 방식에 따라 범주화한 결과를 연구자들 간 비교분석하여 최종 범주화하였다. 객관성 확보를 위하여 도시재생실증연구단 세미나와 워크숍에서 범주화 과정과 결과를 발표하고 논의의 과정을 거쳤다. 세미나와 워크숍에 참석한 외부 전문가들의 피드백을 받아 용어, 활용가능성 등 일부 내용을 수정하였고 이를 통하여 분석의 타당성 확보를 위한 노력을 기울였다.

III. 분석 결과

41개 지역의 도시재생관련 계획서 내에서 사회복지적 요소를 추출하여 이를 유사한 내용끼리 범주화하여 종합·정리하였다. 그 결과 경제적 기반마련과 복지중심 주거환경개선, 지역사회통합추진, 사회서비스 제공 등 총 4가지의 유형이 도출되었다. 따라서 연구결과는 각각의 유형별로 분석된 내용을 중심으로 기술하였다.

전체 41개 지역 중 사회복지사업을 포함하고 있는 지역은 19개였으며 이 중 선도지역은 7개, 취약지역은 12개였다. 이 중 경제적 기반마련 유형이 3개 선도지역과 7개 취약지역에서 나타나 도시재생지역의 가장 대표적인 사회복지사업 유형으로 나타났으며 복지중심 주거환경개선과 사회서비스제공을 포함하는 지역이 각각 8개, 7개였다. 지역사회통합추진형은 4개 선도지역에서만 나타나 다른 유형에 비하여 사업계획에 포함된 사례가 적었다.

표 3. 도시재생사업 내 사회복지사업 적용 유형

유형	해당지역 수	세부내용
경제적 기반마련	3개 선도지역 및 7개 취약지역	도시재생지역 주민들이 지속적인 경제활동참여를 할 수 있는 다양한 사업을 수행함으로써 궁극적으로 지역을 이탈하지 않도록 함
복지중심 주거환경개선	2개 선도지역 및 6개 취약지역	도시재생지역의 고위사업이라 할 수 있는 물리적 환경 접근에서 주거, 교육, 문화, 취약계층 편의 등 복지적 요소를 강조함
지역사회통합추진	4개 선도지역	다문화 주민들을 위한 사업과 주민공동체意識을 향상시킬 수 있는 사업으로 이루어짐
사회서비스제공	2개 선도지역 및 5개 취약지역	도시재생지역 내 취약계층들을 위한 다양한 사회적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수행

1. 경제적 기반마련

경제적 기반마련 유형은 도시재생지역 거주 주민들을 대상으로 지속적으로 경제적 활동을 수행하도록 하여 주민이탈을 방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며, 3곳의 선도지역과 7곳의 취약지역에서 계획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분석에서는 이를 다시 세부사업 구분으로 유형화하였다. 그 결과 사회적 경제방식 활용, 취약계층 취업 지원사업, 공폐가 및 주거환경활용사업, 지역특성활용사업의 네 가지 유형이 도출되었다. 우선 사회적 경제방식 활용 유형은 사회적기업이나 마을기업, 협동조합

등을 구성하여 주민들을 위한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하는 형태이다. 이러한 첫 번째 세부 형태는 대구 남구의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마을협동조합과 사회적기업 설립을 위한 컨설팅, 전남 목포의 노인대상 마을기업 창업, 경북 영주의 마을공동체에 기반한 마을기업 형성, 광주 서구의 협동조합, 마을기업 육성의 사례에서 찾아볼 수 있다. 두 번째는 취약계층을 위한 취업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대구 남구의 취약계층대상 일자리교육, 세종의 노인과 장애인을 대상으로 이들에게 적합한 직종에 대한 취업지원사업이 있다. 세 번째는 지역 내 공폐가나 기존 주거환경을 활용한 사업으로 광주서구의 공폐가

표 4. 유형1_경제적 기반마련 사업유형

구분	지역	사업명	세부내용
선도지역	대구남구	취약계층 및 노인 대상 일자리창출	- 마을협동조합육성 및 사회적기업 컨설팅지원 - 취약계층을 위한 일자리교육
	전남목포	노인일자리 거점 마련	- 노인참여가능 사업아이템 개발 및 마을기업 창업
	경북영주	고령화마을 생업기반 구축	- 기존 마을공동체에 기반한 마을기업을 지원하여 고령화마을의 생업기반 및 시설을 마련
취약지역	광주서구	일거리 창출	- 마을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협동조합, 마을기업 육성 - 공폐가를 정비하여 마을카페와 공동작업장 조성 - 계단식 나대지를 활용하여 매화가꾸기를 통해 소득 창출
	강원동해	일거리 창출	- 게스트하우스를 설치하여 일자리 및 소득 창출 - 장애인 작업장 등의 공동작업실 설치로 지속가능한 일자리 창출
	부산영도	도시농업	- 도시녹화 및 마을사업과 연계한 직접 생산체계 구축
	세종	청춘일자리지원사업	- 독거노인, 고령 및 중증노인, 장애인대상 가사도우미, 공원관리원, 매표원, 청소원 등 지역 일자리 지원
	전남여수	할머니와 하룻밤체험	- 할머니와 하룻밤 체험학습 프로그램 운영을 통해 노인일자리 창출
	울산남구	게스트하우스	- 빈집 리모델링 후 게스트 하우스 운영을 통해 마을활성화 및 주민소득원 창출
	강원강릉	한울타리쉐어하우스	- 마을다방 설치를 통해 일자리를 창출

표 5. 경제적기반마련 사업의 세부유형

유형	세부유형	내용
경제적 기반 마련	사회적 경제방식 활용 사업	- 취약계층 대상 마을협동조합, 사회적기업 설립 지원(대구남구) - 노인대상 마을기업 창업(전남목포) - 마을공동체 기반 마을기업 형성(경북영주) - 협동조합, 마을기업 육성(광주서구)
	취약계층 취업지원 사업	- 취약계층대상 일자리교육(대구남구) - 노인과 장애인 대상 적합직종 취업 지원(세종)
기 반 마 련	공폐가, 주거환경 활용 사업	- 공폐가 정비를 통한 마을카페와 공동작업장 운영(광주서구) - 게스트하우스, 장애인 작업장 설치를 통한 소득 창출(강원동해) - 빈집리모델링을 통한 게스트하우스 사업(울산남구) - 마을다방 운영(강원강릉)
	지역특성 활용 사업	- 계단식 나대지 활용 매화가꾸기사업(광주서구) - 도시농업사업(부산영도) - 노인주택에서의 체험학습프로그램(전남여수)

를 정비한 마을까페와 공동작업장 운영, 강원 동해의 게스트하우스나 장애인작업장 설치를 통한 소득창출, 울산남구의 빈집리모델링을 통한 게스트하우스사업, 강원강릉의 셰어하우스 내 마을다방 설치를 통한 일자리 창출 등으로 구성된다. 마지막으로 지역특성을 활용한 사업으로 광주 서구의 계단식 나대지 활용 매화 가꾸기 사업, 부산 영도의 도시농업사업, 전남여수의 노인 주택에서의 체험학습프로그램 등이 있다.

2. 복지중심 주거환경 개선

도시재생지역 거주 주민들이 보다 나은 주거환경 속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복지수준 향상에 초점을 둔 각종 주거환경 개선사업은 2곳의 선도지역과 6곳의 취약지역에서 계획되어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세부 내용은 첫째, 안정적 주거생활공간 마련, 둘째,

임시주거공간마련, 셋째, 공동사용공간, 편의시설 확충의 유형으로 분류된다. 우선 공폐가를 활용하여 안정적인 주거생활 공간을 마련하는 사업으로 인천 동구의 임대주택인 해피하우스 사례가 있다. 두 번째는 특정 목적 또는 일시적 기간 동안 거주를 위한 임시주거공간마련사업으로서 부산 영도의 고령자, 유아를 대상으로 혹서 혹은 혹한기 거주공간을 제공하는 에너지홈과 마을의 나대지나 공폐가를 활용하는 이주 및 재정착을 위한 순환형 임대주택 사업, 충남 조치원의 대학생 대상 기숙사 제공 사업, 인천 동구의 순환주택과 게스트하우스를 위한 해피하우스 사업이 있다. 마지막으로 공동사용공간 또는 편의시설 확충을 통해 복지수준을 향상시키는 사업으로 대구 남구의 배리어프리사업, 강원 태백의 공가 활용 목욕탕, 도서관, 영유아 보육시설, 체력건강증진센터 등의 편의시설확충, 강원 강릉의 공동식사공간, 도서관, 의료시설 등으로 구성된 한울타리 셰어하우스, 강원

표 6. 유형2_복지중심 주거환경 개선 사업유형

구분	지역	사업명	세부내용
선도지역	대구남구	배리어프리 (Barrier Free)	- 사회취약계층(특히 장애인)을 고려한 시설조성사업 - 안전한 보행환경 개선사업
	강원태백	공가를 활용한 편의시설 확충	- 공가로 방치되어 있는 건물을 목욕탕, 도서관, 영유아보육시설, 체력건강증진센터 등으로 확충
취약지역	강원강릉	한울타리 셰어하우스	- 노인공동식사공간, 도서관, 의료실 등의 공간 활용
	강원동해	주민편의시설 확대	- 경로당 설치로 고령자 센터 제공
	부산영도	에너지홈	- 고령자 대상 혹서, 혹한기 고령자 공동거주 및 공동육아 공간 확보
		순환형 임대주택	- 마을의 나대지, 공폐가를 활용하여 이주공간 확보 및 재정착 유지
	충남조치원	공동생활 공간 마련	- 공가를 활용하여 동네빨래터, 동네부엌 운영 - 대학생에게 저렴한 비용의 기숙사 제공
	울산남구	마을도서관	- 문화적으로 소외된 지역 내 학생 및 주민들 대상으로 마을도서관 운영
인천동구	해피하우스	- 공폐가를 리모델링하여 저소득층에게 저렴한 임대주택, 게스트하우스, 순환주택으로 활용	

표 7. 복지중심 주거환경개선 사업의 세부유형

유형	세부유형	내용
복지중심 주거환경 개선	안정적 주거생활공간 마련	- 해피하우스 임대주택(인천동구)
	임시주거공간 마련	- 혹서, 혹한기에 거주 공간을 제공하는 에너지홈(부산영도) - 이주공간, 재정착 지원을 위한 순환형임대주택(부산영도) - 대학생 기숙사제공(충남조치원) - 순환주택이나 게스트하우스(인천동구)
	공동사용공간, 편의시설 확충	- 배리어프리사업(대구남구) - 목욕탕, 도서관 등의 편의시설 확충(강원태백) - 공동식사공간, 도서관 등의 한울타리셰어하우스(강원강릉) - 경로당 설치(강원동해) - 공가활용 동네빨래터, 동네부엌 마련(충남조치원) - 학생, 주민대상 마을도서관 운영(울산남구)

동해의 경로당설치, 충남 조치원의 공가활용 동네빨래터, 동네부엌마련, 울산 남구의 학생과 주민대상 마을도서관 운영 등이 있다.

3. 지역사회통합 추구

도시재생지역 주민들에 대한 사회통합지원을 위한 지역사회통합추구사업은 4곳의 선도지역에서 나타났으며 이는 다시 다문화 중점 사업과 지역공동체 향상 사업의 세부 유형으로 구분할 수 있다.

우선 다문화에 중점을 둔 사회통합적 접근을 하고 있는 충남 천안은 외국인종합지원센터 운영을 통해 교육과 의료, 일자리를 지원하며 지역 내에 다문화 특화거리 조성을 계획하고 있다. 서울 종로의 경우에도 이주여성이나 다문화가정을 위한 맞춤형 임대주택을 지역 내 보급하여 주거안정을 개선하고자 하였다. 지역공동체 향상 관련 사업으로는 경남창원의 지역화폐 발행 사업이 대표적이다. 지역화폐는 모든 가맹점에서 국가화폐와 동일하게 사용할 수 있게 함으로써 상가활성화를 유도하여 도시재생지역 내의 경기활성화를 모색하고자 하는 것이다. 또한 전남 목포는 마을공동체의 지원거점 마련을 위해 사랑방을 리모델링하는 사업을 계획하고 있었다. 근린재생형 선도지역에 반하여 주거취약지역은 지역사회통합을 추구하는 사업 유형은 나타나지 않았다.

4. 사회서비스 제공

도시재생지역 주민들에 대한 다양한 사회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은 2곳의 선도지역과 5곳의 주거취약지역에서 찾아 볼 수 있다. 이를 다시 세부사업으로 유형화한 결과 돌봄서비스, 여가서비스, 주거서비스의 세 가지 유형이 도출되었다.

각 유형의 특성을 보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우선 노인이나 장애인, 아동청소년을 위한 돌봄서비스 유형으로 경북 영주의 소셜다이닝서비스프로그램과 노인대상 안전서비스체계구축사업, 전남 목포의 취약계층청소년 돌봄을 위한 청소년방과후활동지원프로그램, 광주 남구의 노약자돌봄서비스제공, 부산 사상의 취약계층주민대상 안부전화기사업과 공동육아돌봄서비스가 있었다. 각종 여가서비스로는 경북 김천의 노인대상 마을공동체 활성화사업과 강원 동해의 노인대학, 부산 영도의 새로 건립되는 커뮤니티센터를 활용한 문화프로그램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주거서비스와 관련해서는 경북 영주의 주거환경개선사업과 부산 사상의 집수리사업, 부산 영도의 노후주택관리를 위한 마을관리사무소사업이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와 같이 현행 도시재생사업 내에서도 총 4개의 범주 안에서 지역사회 특성이 고려된 각종 사회복지사업들이 계획되고 있었다. 하지만 대체적으로 수행이 쉽고 보편적 수준의 사업으로 도시재생사업의 궁극적 성과

표 8. 유형3_지역사회통합추구 사업유형

구분	지역	사업명	세부내용
선도지역	충남천안	다문화 끌어안기	- 외국인 종합지원센터를 설립하여 교육, 의료, 일자리 등을 지원 - 지역 내 다문화 특화거리를 조성
	서울종로	맞춤형 공공주택	- 이주여성, 다문화가정이 입주할 수 있는 맞춤형 임대주택을 지역 내 보급하여 주거안정 개선
	경남창원	지역화폐 가고파	- 지역화폐를 발행하여 모든 가맹점에서 국가화폐와 동일한 가치를 부여하여 상가활성화 유도
	전남목포	사랑방 리모델링	- 마을공동체 지원거점 마련을 위해 사랑방을 리모델링

표 9. 지역사회통합추구 사업의 세부유형

유형	세부유형	내용
지역 사회 통합 추구	다문화 통합	- 외국인 종합지원센터 운영 및 다문화특화거리조성(충남천안) - 다문화가정을 위한 맞춤형 임대주택 보급(서울종로)
	지역공동체 향상	- 지역화폐 발행(경남창원) - 마을공동체 거점을 위한 사랑방 리모델링(전남목포)

표 10. 유형4_사회서비스 제공 사업유형

구분	지역	사업명	세부내용
선도지역	경북영주	소셜다이닝프로그램	- 소셜다이닝프로그램과 시설을 조성하여 소규모단위로 단절된 마을공동체 간의 커뮤니티를 활성화하고 자생적 노인복지네트워크를 구축
		주거환경개선사업	- 마을기업을 활용한 주거환경개선사업 추진체계를 구축하고 집수리 지원 및 생활환경개선봉사를 통한 세대 간 교류 확대
		안전서비스체계 구축	- 노인이 안전한 마을환경 제공을 위해 안전서비스 체계를 구축하고 제공
	전남목포	청소년방과후 활동지원	- 맞벌이, 한부모, 취약계층 가정의 청소년 활동지원을 통해 건강한 성장지원 도모 - 취약계층 돌봄사각지대 청소년종합지원을 통해 계층간 격차 완화
취약지역	광주남구	노약자돌봄서비스	- 광주 협동조합형 마을기업을 조성하고 노인, 장애인 돌봄서비스 제공
	경북김천	마을공동체활성화	- 어르신 동아리육성, 어르신 건강문화증진프로그램
	강원동해	노인대학	- 경로당 등 공동이용시설 내 노인대학 운영으로 여가활동 활성화
	부산사상	안부전하기	- 독거노인, 장애인 등 취약계층 주민대상으로 이웃연계 및 안부전화 등 지역공동체와 연계한 복지사업 운영
		공동육아돌봄	- 마을 내 부모커뮤니티를 활성화하여 취약계층의 자녀돌봄 프로그램 운영
		집수리	- 목수재능기부를 통해 쪽방촌 및 담장 정비, 지붕 수리
	부산영도	마을관리사무소	- 아파트 관리사무소 개념의 노후주택 유지보수서비스 제공
		커뮤니티센터 운영	- 영도노인복지관 분관 설치 - 커뮤니티 센터 내 마을갤러리, 마을카페 설치

표 11. 사회서비스 제공 사업의 세부유형

유형	세부유형	내용
사회 서비스 제공	돌봄서비스	- 소셜다이닝프로그램(경북영주) - 안전서비스체계구축(경북영주) - 청소년방과후활동지원(전남목포) - 노약자돌봄서비스(광주남구) - 안부전하기(부산사상) - 공동육아돌봄(부산사상)
	여가서비스	- 마을공동체 활성화(경북김천) - 노인대학(강원동해) - 커뮤니티센터 운영(부산영도)
	주거서비스	- 주거환경개선사업(경북영주) - 집수리(부산사상) - 마을관리사무소(부산영도)

를 고도화하기에는 다소 부족해 보인다.

따라서 도시재생사업 내에 보다 전문적인 복지기법 적용을 위해서는 사회복지적 지식과 기술을 바탕으로 한 세부적 수행체계가 마련되어야 하며, 단순 사업아이템 제시수준에서 벗어나 구체적인 복지기법 추진전략이 필요하다.

IV. 결과 및 논의

본 연구는 현재 근린재생형 도시재생 선도지역과 주거취약지역으로 선정된 41개 지역의 도시재생관련 계

획(안) 내에서 물리적 재생 외에 지역사회의 다양한 문제해결을 위하여 어떠한 노력을 하고 있는지 분석하여 총 4가지의 유형을 도출하였다. 4가지 유형은 경제적 기반마련, 복지중심 주거환경개선, 지역사회통합추구, 사회서비스 제공이었으며, 이를 목적과 특징 별로 세분화하여 총 12개의 세부 유형을 구성하였다.

이러한 결과를 바탕으로 향후 도시재생사업 내에 사회복지기법이 안정적으로 운영되기 위한 전략을 4가지 항목으로 구분하여 논의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경제적 기반 마련과 관련하여 도시재생지역 내의 다양한 일자리 관련 조직들 간 협업 체계 구축이 관건이다. 특히 최

근 들어 도시재생영역에서 중요한 경제관련 조직으로 부상하고 있는 사회적 경제조직[24]이나 기존의 고용서비스 제공기관들 간의 협업을 통해 도시재생지역 주민들의 경제적 기반을 굳건히 할 수 있는지에 대한 내용이 마련되어야 한다. 이러한 체계를 바탕으로 안정적인 근로가 가능할 수 있도록 지역 내 공·폐가들을 일자리 거점공간으로 전환하고 기존 주민들에 대한 접근 외에도 새로운 인구들이 유입될 수 있는 가능성을 확대해야 한다. 또한 지역사회가 보유한 특성이 일자리와 연계될 수 있도록 다양한 아이디어의 도출이 필요하다.

둘째, 주거환경이 지역주민들의 복지를 어떠한 방식으로 증진시킬 수 있는지에 대한 부분이다. 이를 위해서는 실제 도시재생 사업수행과정에서 복지전문가나 노인, 장애인 등 관련 당사자들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는 공식체계들을 마련하고 이러한 의견을 복지중심 주거환경 개선에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하다. 그리고 만약 도시재생지역에 사회복지 서비스 제공기관이 설치되어 있지 않다면, 유희공간을 인근 사회복지기관들의 서비스 제공 거점장소로 활용하는 분소(分所) 개념을 도입하여 지역 내 사회복지 서비스 제공 총량을 늘리는 방안도 가능하다. 또한 공폐가와 관련해서는 다양한 관련 사례들[25-27]을 바탕으로 지역주민들의 복지에 효과적으로 활용될 수 있는 방안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셋째, 지역사회통합 추구 사업의 경우 도시재생 선도지역에서는 있었지만 주거취약지역에서는 전혀 없으므로 이와 관련한 적절한 사업 마련이 필요하다. 특히 다양한 지역주민들의 상황을 통합할 수 있는 물리적, 프로그램적 접근이 활발하게 이루어져야 하고, 다문화가정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 외에도 독거노인이나 1인 가구세대, 한부모세대, 조손세대 등 사회·경제적으로 취약할 수 있는 계층에 대한 지속적 관심이 요구된다. 그 외에 지역사회통합의 과정에서는 도시재생 전문가 등을 포함한 외부인에 의해 이루어지기 보다는 지역주민 스스로가 주체가 되는 것이 바람직하므로, 통합이라는 성과도출을 위한 주민들의 역량 강화와 자발성 향상에 역점을 두어 그 기반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사회복지서비스는 주민들의 관련 욕구를 정

확히 분석하여 전반적인 사회복지서비스 제공계획을 먼저 수립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러한 과정 없이는 단편적이고 일시적인 사회복지서비스 제공의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또한 다양한 사회복지서비스가 도시재생지역 내에 제공되기 위해서는 사회복지서비스와 관련한 기존의 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방안도 모색되어야 한다. 특히 시군구를 기본 단위로 하여 지역 내 다양한 사회적 문제해결을 목적으로 하는 지역자율형 사회복지서비스투자사업과 같은 경우, 도시재생지역의 특성을 고려한 사회복지서비스 제공의 가능성이 매우 높다. 그리고 현재 사회복지서비스의 영역이 돌봄과 여가, 주거지원에 집중되고 있어 일자리 지원이나 양육지원, 교육 등 지역문제 해결을 위한 사회복지서비스로 확대 제공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세부 사업유형 외에 운영체제와 관련한 추진전략을 살펴보면 도시재생사업 추진주체들과 지역 내 공공-민간 사회복지주체들의 상호 이해를 바탕으로 다양하고 실제적인 협업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무엇보다 필요하다. 이를 위해 협업관련 매뉴얼을 개발하여 확산시키고 지역 단위의 실현 가능한 복지기법적용 네트워크를 형성하며 중앙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의 지원체계가 구축되어야 한다.

이렇듯 본 연구는 도시재생사업 내 사회복지적 기법적용을 위해 현재 계획된 내용들을 유형화하고 안정적인 사업수행을 위한 실제적 조건을 제시했다는 의의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시재생 선도지역과 주거취약지역의 사업계획서를 분석대상으로 하였기 때문에 실제 사업수행 결과와는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도시재생사업 내에서의 사회복지 기법 적용이 지역사회에서 어떠한 성과를 거두었는지는 알기 어렵다는 한계가 있다. 또한 논의과정에서 관련 선행연구가 부족하여 비교논의가 이루어지지 못한 제한점도 있다. 이러한 연구의 한계를 바탕으로 다음과 같은 후속 연구를 제안할 수 있다. 도시재생사업 내에서의 사회복지기법이 실질적으로 어떻게 적용되었는지 유형별로 사례연구를 할 수 있다. 또, 도시재생사업에서의 사회복지 기법적용의 구체적인 성과에 대한 연구가 수행되면 향후 도시재생 지역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실질적으로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참고 문헌

- [1] 김은정, “도시재생과 건강의 연계성에 대한 개념화,” 도시행정학보, 제29권, 제3호, pp.163-180, 2016.
- [2] 추미경, *지역문화정책의 도시재생 기여방안*, 도시재생컨퍼런스 발표자료집, 국토교통부, 2014.
- [3] 국토교통부, *규제합리화를 통한 주택시장 활력회복 및 서민 주거안정 강화방안*, 국토 교통부[2014. 9. 1 보도자료]
- [4] 정광진, 이종근, 이삼수, “도시재생 선도지역의 사업유형 및 재원조달 특성 분석,” 한국지역개발학회지, 제28권, 제2호, pp.19-37, 2016.
- [5] 김정기, *도시재생의 동향에 대한 사회복지 관점에서의 조명*, 한국지방정부학회 학술대회자료집, pp.136-148, 2010.
- [6] 김혜천, “시장과 도시재생: 시장과 도시재생의 조응성을 중심으로,” 환경논총, 제47호, pp.71-94, 2008.
- [7] 김남룡, 김영, 고석남, “도시정비사업에 관한 도시재생의 경제적 파급효과 분석,” 국토계획, 제44권, 제6호, pp.89-103, 2009.
- [8] M. Gibson and M. Langstaff, *An Introduction to Urban Renewal*, Hutchinson Publishers, 1981.
- [9] R. Roberts and H. Sykes, *Urban Regeneration: A Handbook*, SAGE, 2004.
- [10] 홍경구, “주민참여 마을만들기 활성화를 위한 법제도 개선방향,” 건축, 제59권, 제6호, pp.51-56, 2005.
- [11] 국토교통부,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 프로젝트 사업대상 85개소 선정*, 국토교통부[2015.3.24. 보도자료]
- [12] V. Kupke, *Measuring Urban Renewal Outcomes*, 14th Pacific Rim Real Estate Society Conference, Kuala Lumpur, 2008.
- [13] Beatriz Plaza and Silke N. Haarich, “The Guggenheim Museum Bilbao: Between Regional Embeddedness and Global Networking,” *European Planning Studies*, Vol.23, No.8, pp.1456-1475, 2015.
- [14] Labadi, Sophia, *Evaluating the socio-economic impacts of selected regenerated heritage sites in Europe*, European cultural Foundation, 2011.
- [15] 민혜숙, 김영범, 남진, “도시재생사업의 사회적 효용에 관한 연구: 공공의 관점,” 국토계획, 제51권, 제3호, pp.113-133, 2016.
- [16] 장용일, 김창성, “도시재생 사례분석을 통한 커뮤니티 활성화 정책에 관한 연구-영국 독일 한국의 도시재생 사례를 중심으로,” 한국생태환경건축학회논문집, 제16권, 제5호, pp.93-101, 2016.
- [17] Sally McDonald, Naglis Malys and Vida Maliene, “Urban regeneration for sustainable communities: A case study,” *Ukio Technological and Economic Development of Economy*, Vol.15, No.1, pp.49-59, 2010.
- [18] Karen Hibbitt, Peris Jones and Richard Meegan, “Tackling Social Exclusion: The Role of Social Capital in Urban Regeneration on Merseyside-From Mistrust to Trust?,” *European Planning Studies*, Vol.9, No.2, pp.141-161, 2001.
- [19] <http://www.city.go.kr/portal/>
- [20] 충남 공주시, 광주시 동구, 전북 군산시, 대구 남구, 전남 목포시, 서울 종로구, 전남 순천시, 경북 영주시, 경남 창원시, 충남 천안시, 강원도 태백시, *도시재생활성화계획(안)*, 2014.
- [21] 서울시 종로구, 부산시 서구, 부산시 사상구, 부산시 사하구, 대구시 중구, 인천시 동구, 전북 전주, 전북 익산시, 전남 여주시, 전남 순천시, 인천시 부평구, 광주시 남구, 광주시 서구, 경북 김천시, 경남 양산시, 경남 창원시, 경남 진주시, 대전시 대덕구, 강원도 동해시, 강원도 강릉시, 강원도 태백시, 울산시 남구, 세종시 조치원읍, 제주시, 경기도 포천시, 경기도 양주시, 충북 제천시, 충남 논산시, *주거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선 프로젝트 사업신청서*, 2015.
- [22] T. Anderson, L. Rourke, D. R. Garrison, and W.

Archer, "Assessing teaching presence in a computer conference context," Journal of Asynchronous Learning Networks, Vol.5, 2001.

[23] <http://www.ncbi.nlm.nih.gov/pubmed/16204405>

[24] 최조순, 김태영, 김종수, "도시재생과 사회적기업의 역할," 한국도시행정학회 도시행정학보, 제24권, 제1호, pp.283-302, 2011.

[25] 하창호, 곽희중, 김현숙, "근린재생을 위한 노후저층주거지 내 공지 및 폐가의 활용방안 및 텃밭조성에 관한 연구-전주시 노송동 노후주거지구를 사례로," 도시설계, 제14권, 제6호, pp.81-93, 2013.

[26] 이창우, 이재우, "주거지 공·폐가 정비 우선순위 설정을 위한 평가기준 연구," 주거환경, 제13권, 제2호, pp.67-79, 2015.

[27] 최우함, 원현성, "공·폐가를 활용한 예술마을 대상지 선정방법-광주광역시(대한민국)를 중심으로-," KIEAE Journal, 제16권, 제5호, pp.81-86, 2016.

엄 태 영(Tae-Young Um)

정회원



- 2004년 2월 : 연세대학교 사회복지학과(사회복지학석사)
- 2009년 8월 : 연세대학교 사회복지학과(사회복지학박사)
- 2010년 9월 ~ 현재 : 경일대학교 사회복지학과 부교수

<관심분야> : 지역복지, 자활

류 진 아(Jina Ryoo)

정회원



- 2005년 2월 : 연세대학교 사회복지학과(문학사)
- 2010년 8월 : 연세대학교 사회복지대학원(사회복지석사)
- 2014년 2월 ~ 현재 :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원

<관심분야> : 사회복지 전달체계, 지역복지

저 자 소 개

강 혜 규(Hyekyu Kang)

정회원



- 1991년 8월 : 연세대학교 사회복지학과(사회복지학석사)
- 2005년 2월 : 연세대학교 사회복지학과(사회복지학박사)
- 1994년 9월 ~ 현재 :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위원

<관심분야> : 사회복지 행정, 복지 전달체계, 사회복지 서비스 공급체계